

성파 스님과 서운암 상좌들이 6월 1일 하안거 결계법회에 앞서 새 주지로 임명된 영배 스님을 찾아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었다.

### 통도사, '화합'의 하안거 결계 법회

법회 전 결계·서운암 대중 영배 스님과 덕담 나누

#### 영배 스님 "화합이 제1덕목"

주지 선출을 관련해 내용을 겪었던 영축총림 통도사가 6월 1일 하안거 결계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3개월 간의 안거 기간 동안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법석이면서 내부 화합과 결속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임명된 신임 주지 영배 스님 체재가 별 내용없이 안착될 것으로 보여진다.

화합 무드는 법요식 전부터 확인됐다. 법회 전 하안거 결계에 참여하는 대중들은 차례로 통도사 주지실을 찾아가 영배 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했으며 영배 스님은 정진 할 것을 당부하며 격려했다. 또한 노천문도회장 성파 스님(서운암 회주)과 서운암 상좌들이 방문해 축하하고 덕담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통도사 하안거 결계 법회는 삼귀의로 시작해 방장 원명 스님의 결계 법어, 주지 스님의 인사말씀, 사홍선원, 기념 촬영 등으로 마무리 됐다.

방장 원명 스님은 결계 법어를 통해 "과거의 우리 선지식들이 참 불소식에 이르

지 않고서는 멈추지 않으리라는 의지로 두려움과 맞섰다"며 "오늘 이 자리의 대중들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나섰으면 끝까지 밀어 붙여야 한다"고 당부 대중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법회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영배 스님은 화합을 제1덕목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영배 스님은 "통도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단일 문종으로 하나"라면서 "통도사 대중들은 양보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하는 법을 떠받드는 모습으로 화합을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주지 임명과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사전 의논이나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결계에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 통도사의 안정을 위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상하고 있는 일이 많아 고민이 많다는 영배 스님은 "근간엔 통도사가 갖는 사격에 비해 여러 활동에 아쉬움이 있다. 역량을 극대화 해 부처님 전법을 실현하는 과정을 여법히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 창종 정신 되새기며 새 70년 방향 모색

###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창건 70주년 행사 다채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가 창건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행사는 우선 6월 12일 불교전태중앙박물관 주관으로 열리는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 역사사진전'으로부터 문을 연다. 구인사의 70년 역사를 사진이라는 시각자료를 통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조망토록 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300점의 사진과 함께 기념물을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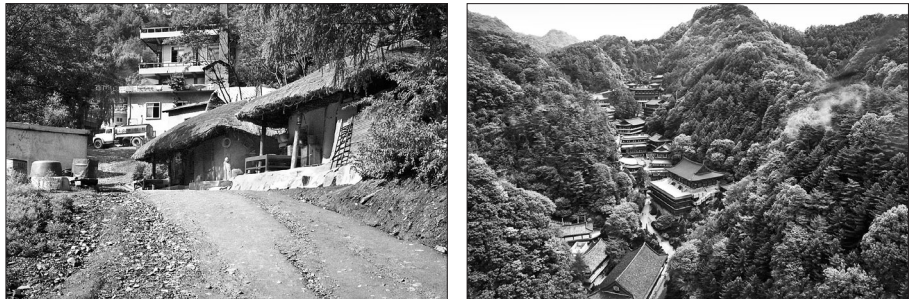
메인 행사는 19일에 주로 열린다. 학술대회와 음악회가 그것이다. '한·중·일 3국 천태종 총본산의 개산과 수행종풍'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의 주관으로 구인사 광명전서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개최된다.

주제 발표자로는 중국 국청사 천태종불학원의 쉬스지 교수(천태산 국청사와 천태지자대사), 중국인민대학 불교와종교학 이론연구소 장평레이 교수(고려 의통과 송초 천태종의 중흥), 일본 예산학원 구와 다니 유켄 학감(히에이잔 엔라쿠지와 사이초대사), 일본 연력사 말사 구법사의 주지 다케 가쿠조 스님(엔라쿠지의 수행과

문화), 동국대 권기중 명예교수(소백산 구인사와 상월원각대조사), 인천 황룡사 주지 세운스님(구인사의 수행종풍과 문화) 등이 나선다.

또한 같은 장소인 광명전서 오후 6시 30분부터 펼쳐지는 70주년 기념 음악회는 관문사 구강사 광수사 광법사 삼태사 황덕사 정광사 황룡사 삼천사 등 10개 사찰로부터 300여명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연꽃향기' '모범연화의 노래' '부처님께 귀의합시다' 등 10여 곡을 음성공양 한다. 이외에도 테너 정우진 한정일 정무시 등을 비롯해 바리톤 김재일 조승만, 소프라노 황혜진 정지영 등이 출연하며 박윤규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이외에도 20일(음력 5월 5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광복 70년 세계평화 국민



창건 당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전경(사진 왼쪽)과 현재의 구인사(사진 오른쪽) 그간의 발전 모습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화합 기원 및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 대법회'가 광명전서 열린다.

한편 중국서 수행한 뒤 귀국한 대한불교 천태종 종조인 상월원각 대조사는 광복이던 해인 1945년 2월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현재 법당이 있는 곳에 정지(整地)하고 5월 단오일에 신도 8명과 함께 구인사를 개창했다. 그래서 매년 단오일을 구인사를 개창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창건 당시 초기삼강 규묘이던 구인사는 50여 동의 크고 작은 법당으로 이뤄진 대가람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비단 외형적 불사만의 성상은 아니었다. 8명으로 출발한 천태종의 신도는 70년이 지난 지금 250만 명으로 늘었고, 사찰 250여 개, 스님도 약 500여명 정

도가 소속돼 있다. 또한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인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3대 실천 지표로 정해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고 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된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과 동시에 천태종도 상월대조사의 원력에 의해 창종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상월대조사께서 중생구제를 위해 창종하신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70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익 기자 kimj4217@hyunbul.com**

## 해외 유출 조선 칠성도 범어사 '還地本處'

1950~60년대 혼란기에 유출 국외재단 모니터링 중 발견 "19세기 대표 불화" 평가 원소재처 범어사 경매 낙찰 불교계·국가기관 협력사례



범어사와 국외소재문화재단의 협력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아 환수한 조선 칠성도 불화. 왼쪽부터 '치성령여래 일광보살 월광보살도', '제5광팔지변여래 염정성군도', '제6광해유희여래 무곡성군도'.

6·25전쟁 등 한국사회의 혼란기인 1950~60년대 초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후기 불화 3점이 문화재청 산하 재단과 원래 봉안되었던 사찰의 노력으로 국내에 환수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와 국외소재 문화재단(이사장 안휘준, 이하 국외재단)은 6월 3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진행된 한 옥션에서 부산 범어사 극락암(極樂庵)에 봉안됐다가 사라진 '칠성도' 3점을 7만8500스위스프랑(한화 9400여만 원)에 낙찰받았다.

국외재단은 해외 경매시장에 출품된 한 국문화재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취리히 소재 콜러 옥션(Koller Auktionen)에 출품된 '칠성도'를 발견했으며, 곧바로 전문가에게 불화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칠성도' 하단에 적힌 그림의 조성 경위를 적은 화기(畵記)를 통해, 이 불화 3점이 1861년 밀양 표충사에서 제작된 뒤 범어사 극락암으로 옮겨 봉안된 '칠성도' 11점 가운데 3점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칠성도의 중심인 '치성광삼존도'가 남아있는 점 등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매를 앞두고 스위스 현지에서 '칠성도' 3점을 조사한 불교회화 전문가인 이용운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연구실장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11점 구성의 칠

성도로 국내 입수 후 범어사로 봉안 시, 본래의 종교적 기능 또한 회복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불화 3점의 원래 봉안처를 확인한 국외재단은 범어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범어사는 불화를 확인한 즉시 환수에 적극 나섰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환수된 '칠성도'는 본래 봉안처인 극락암을 재조성해 안치하고, 나머지 '칠성도'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승가 청구 방향 논한다 조계종 교육원 25일 세미나 개최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승가청구와 그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중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는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 출가승려와 청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원은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승가청구 정립 성과를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이 '현대사회 승가청구는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 주경 스님(중앙종회의원)이 '새로운 승가청구, 어떻게 종단에 정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과 자연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월정사 교무국장), 만당 스님(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전남 영광 불갑사)과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신성민 기자**

## '뺏다방' 유사 포교당 상행위 주의보

조계종 호법부, 6월 2일 관련 당부문 발표

단기간 입차 포교당 운영하며 노인 대상 생필품 제공 등 영업수익, 천도제 비용 청구·분납도

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포교당 △법회,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 만담 등의 유희 위주로 운영 △법문 시 지나치게 영가천도의 필요성을 강조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절장,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 △과도한 천도제 및 위패, 수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 등 분납을 강조 △천도제나 위패, 수의에 대하여 가족과 상의를 하지 못하는 곳 등이다.

호법부는 "정상적인 포교당(포교원)은 천도제 및 위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종단의 명칭을 무단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종단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당의 경우 종단의 조나 행지도가 불가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최근 '뺏다방' 식 영업 행위로 천도제를 유도하고 위패장사를 하는 유사 포교당이 늘어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종단을 사칭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불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는 6월 2일 발표한 당부문을 통해 "유사 포교당 상행위로 인한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호법부가 밝힌 유사 포교당 사례로는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하며 생필품 등의 선물을 무료로 배부 △단기간(수개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2.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5. 문의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7월 15일까지 수시전형

주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